

푸르른 날

서정주(1915-2000)

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
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

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
초록이 지쳐 단풍지는데

눈이 오면 어이 하리라
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라

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?
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?

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
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.